

물리치료

사단법인 대한물리치료사협회
Korean Physical Therapist Association

회보를 발간하며...

정진우
협회장

새 봄을 위하여 “물리치료” 라고 이름 지어진 우리들의 회보를 발간하게 되었음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협회발족 이래 회지 발간을 위하여 몇번의 노력을 시도했으나 모두 불발탄으로 그치고 말았습니다. 1974년도에 처음으로 회보가 창간 되었으나 첫 회에 끝났고 현재 미국에 계신 최세용씨가 서울 지부장을 맡아볼때 13회에 걸친 “물리치료 회보”가 공판타자로 인쇄되어 서울지역 회원들에게 배포되었던 것이 가장 길었던 회지였으나 지부장이 이민을 가게되고 그 당시의 상황으로 서울지부가 잠정적으로 해체됨에 따라 회보의 명맥이 끊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1979년도에 협회신문을 중앙회에서 발간 했었지만 역시 창간호에 그치게 되었고 현재의 홍보부장인 홍정선씨가 회지발간을 해야겠다고 통감하여 협회지 1호를 발간케 되었으나 계속 발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12.6 사건으로 계엄령이 발표되어 회지발간을 중단 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에 놓이게 되었던 시문이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똑같이 출발한 방사선사 협회나 임상병리사 협회는 어엿한 협회신문을 격월로 발간하여 그 위용을 발휘하고 있고 학회지도 매년 발간되고 있는 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여년이 지난 지금에

지발간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우선 회지의 이름과 성격에 대하여 토론한 결과 “물리치료”란 이름을 짓게 되었고 가능한한 협회소식과 학술적인 면을 많이 할애하는 회지의 성격을 되도록 하자고 결의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의 “물리치료”가 탄생된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회지의 생명력입니다. 태어나서 하루도 못가는 하루살이가 되어서는 이번만은 절대로 안될 것입니다. 연속성이 있고 증보발간해 나갈수 있는 협회지가 되도록 모두 합심하여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연속성과 증보발간을 위해서는 회장단의 노력과 임원들의 노력여하에도 달려 있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회원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번번히 회지의 발간이 무산된 이유도 원고가 없었다는 이유가 큰 이유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회지는 우리 물리치료사들의 얼굴이며 마음입니다. 우리들의 뜻과 생각과 결의를 이것을 전달하는 매개체를 통하여 회원과 협회 사이의 공간을 좁혀 밀착시켜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회지는 우리들의 마당이기도 하고 대화의 광장을 마련 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회지의 발전과 더불어 우리 스스로가 발전 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임상에서 학교에서 혹은 책속에서 새로운 정보, 새로운 사실, 새로운 경험, 보람있었던 일, 임상수기, 그 무엇이랄도 회지에 발표해 보겠다는 마음과 뜻을 들어 편집실이 불이나게 바쁘도록 많은 원고를 보내 주셔야 활력있는 회지발간작업에 계속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회장단이 바뀌고 새로히 출발하는 이 시점에서 다시한번 회지발간을 시작하게 될것은 상당히 뜻깊은 것이라 생각 됩니다. 제 1차 이사회때에 회

끝으로 회원여러분들의 협조에 못지않게 회장단과 모든 임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 집담회 개최

1. 일시: 1981. 4. 24 5:30 PM ~ 8:00 PM
2. 장소: 서울대학병원
3. 강사: Beacom R. P. T (미 121 병원)
4. 제목: Cardiac Rehabilitation

◎ 협회회관건립기금모금 현황

1981년도 목표총액	500 만원
1980년도 적립총액	176 만원

기금모금내역: 영구회비와 미납회비(1980년 까지)를 포함하여 회원들의 찬조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미납회원들의 적극적인 회비납부를 바랍니다.

Bobath의 神經發達을 爲한 治療方法

(편집부)

上位運動神經原(upper motor neuron: UMN)에 病變이 있는 患者들—腦性痲痺, 半身不隨等의 治療時에는 姿勢와 運動에 筋機能의 協同障擱가 問題가 된다. 그래서 治療는 各 筋肉의 힘의 增強이나 弛緩만으로는 解決되지 않는다.

이런 問題點을 解決하기 爲하여 考案된 治療方法이 「神經發達을 爲한 治療法」이라고 알려진 Bobath Method 라고 볼 수 있다. 이 方法은 姿勢를 取할때 正常 姿勢緊張의 獲得과 運動을 할 때 協同의 增進을 促進시키는 方法을 알려준다. 그러나 이 方法은 傳統性和 信憑性은 있으나 患者狀態의 多樣함과 複雜性 때문에 適用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 方法에 對한 原理의인 考察으로써 이에 對한 理解를 增進하고 活用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正常姿勢維持와 運動發達을 增進시키기 爲하여 過度한 非正常反射의 抑制와 平衡反應의 促進이 非正常姿勢를 顛倒시키며 筋張力을 正常화시켜줄 수 있다는 理論에 根據를 둔 Bobath method의 重要한 原理는 다음과 같다.

첫째, 治療의 精髓部分인 反射抑制樣式들은 어떤 姿勢(눕거나, 엎드리거나, 무릎꿇거나, 앉거나, 서거나 등등)에서는 緊張反射가 가장 主導(dominant)된 樣式을 깨뜨린다. 그래서 가능한 다양한 정상자세 반응을 유도하여 주어 最初의 非正常姿勢를 變化시키는 것을 도와준다. 成功的인 抑制로 緊張反射가 弱해지면 姿勢緊張은 보다 正常的으로 되며 患者는 反射를 調節(control)할 수 있게 된다.

둘째, 永久的인 緊張反射의 抑制는 正立(righting)反應과 平衡(equilibrium)反應의 促進에 의해 얻어질 수 있다. 運動이 發達되고 있는 限, 痲痺(spasticity)은 減少되며 姿勢緊張도 줄어든다.

셋째, 正立反應과 平衡反應의 再活性은 促進의 技巧을 使用하여 얻을 수 있다. 促進의 技巧은 特別한 技術(어머니가 아이를 기를 때 本能的으로 利用되는 것)로 患者를 다룸으로써 緊張이 減少되고 調節될 때 自然히 생기는 運動反應을 얻는 技巧들이다.

「促進(facilitation)의 效果」에 對한 說明은 Ritchie Russell (1958)의 研究에 基礎를 둔다. 그는 神經生理學의 면에서 神經接合傳達(synaptic transmission)은 어떤 一定한 高리를 따라 이어지며 이 연결에 따라 前에 活動했던 것에 의해 促進될 수 있다고 했다. 神經細胞의 機轉은 反復을 要하는 것이 明白하며 또한 中樞神經系의 各部位에서도 그러하다. 만약 새로 促進된 反應이 系統發生의인 固有反應이라면 이 反復의 效果는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즉 한 번 確立되면 새로운 反應은 假想的인 記憶의 中樞 때문이 아니라, 神經接合傳達(synaptic transmission)의 고리 때문에 反應이나 運動이 소멸되거나 많은 저항을 받게 된다.

다.

넷째, 보다 成熟된 反應들은 非正常反應과 脊髓反射들을 變形시킨다. 이들은 姿勢緊張을 抑制하고 낮게 維持한다. 보다 發達된 姿勢反應이 確固하게 設立되면 治療는 正常技術(skill)들을 訓練하도록 進전될 수 있다. 그러나 腦의 損傷이 深한 患者는 보다 發達된 運動反應을 治療를 통해 多樣하게 일깨워 낼 수 있더라도 正常運動의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다섯째, 非正常反射의 活動을 抑制하는 것과 運動의 促進方法을 서로 同伴하여 교대로 사용하든가 동시에 사용하든가 한다. 어떤 方法이든 患者가 能動的으로 움직일 기회를 주어야만 한다.

여섯째, 四肢의 姿勢緊張의 強도와 分布는 “key-points”라고 불리는 近位部(head & neck, shoulder girdle, trunk, pelvic girdle)로부터 조절되고 影響을 받는다. 단지 key-point에서의 調節만으로도 非正常 姿勢나 正常運動의 效果的인 抑制 및 四肢의 姿勢緊張의 強도와 分布를 調節할 수 있다. key-point에서의 調節만으로 同時에 抑制와 促進의 技術을 使用할 수 있고 남은 遠位部分을 運動시킬 수 있다.

일곱째, 治療者가 患者를 다룰 때, 能動運動反應들은 調節되는 近位部에서 보다는 먼 곳에서 보다 쉽게 일어난다. 고로 바라는 곳에서 연속적인 能動運動을 얻으려면 患者의 心要(needs)에 따라 계속 변화시키고 適應시켜야 한다.

痲痺(spasticity), 硬縮(rigidity) 筋緊張異常性 無定位運動(dystonic athetosis)이 있는 오래된 患者의 境遇에는 能動運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姿勢緊張이 正常的으로 될 때까지, 오랜동안 抑制의 技術만을 使用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正立反應들은 가능한 빨리 促進되어야 한다.

非正常反射의 反應을 刺戟하기 쉽고 過緊張을 增加시키는 運動은 조심스럽게 피해야 된다. 예를 들어 다리를 펴서 밀려놓고 앉아 있을 때 뒤로 팔을 짚도록 運動을 유도하면 伸展筋의 痲痺(extensor spasticity)을 增加시키기가 쉽다.

여덟째, 正立反應과 平衡反應을 促進함으로써 全 運動發達過程(구르기, 배밀이, 앉기, 손과 무릎으로 기기, 서기, 걸기)을 획득할 수 있다. 아주 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正立反應을 大部分 얻을 수 있다. 四肢痲痺의 심한 경우에는 平衡反應중의 섰을 때나 걸을 때 必要한 反應을 얻기 힘든 경우가 있기도 하다.

註) 本文은 襄昇鶴 “Bobath의 方法과 筋神經의 固有受容感覺促進方法에 對한 考察” 「재활소식」 37호 1977.에서 발췌수록한 것임.

고대부속병원
홍정선

고대부속병원 재활의학과

남!
리가 이세상의 빛을 보면서 부터 필연적으로
되어버린, 부모와 가족과의 만남, 그이후의 성
나가면서 맞는 친구들이나 그밖의 모든 만
에서 우리가 현재 대하고 있는 병원에서의
을 생각해본다.

자와의 만남!
어느 만남보다도 어렵지만 한 것 같다. 치료사
의 큰노력이 있어야겠고 결실을 맺어야 하는
말이다.

짧은 임상경험중 가장 햇병아리 시절에 처
재하게된 82세의 고령이신 환자분과의 만남을
해 보겠다.

척 이지적이시고 대하기가 무척 까다로우신
로 82년간의 생을 병한번 없이 지내시다가
하게도 그 분께 찾아온 하반신마비에 대해 처
는 무척 회의적이셨으나 일어서고야 말겠다는
1년의 하나하나가 너무도 배울점이 많았던 분
کم 내게 더 어려웠고 그분과의 하루 한시간
간담이 힘들기만 했다.

은 환자보다 요구가 많으셨고 질문 또한 많
는 때문에 더욱 힘들었다고 할 수 있다.

국 하루에 한번 뵙기 위해서는 남몰래 공부
움이 해야했고 한시간의 그분과의 만남이 어
간 느껴졌다.

가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고령이신 그분의 노
스스로 고개를 숙이지 않을수가 없었다.

은 사람들도 좀체로 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
노력에 놀라지 않을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노력이 아닌 그분의 노력과 집념으로 그분은
누 있었고 Brace를 차시고 한발짝 한발짝
을 옮기실 때에는 부끄럽기조차했다.

우 그분과의 만남이 고달팠던 만큼 하나하나
되고 있는 그분의 모습에 보람과 부끄러움이
내 최선을 다할수 있었다.

이막 그분이 걸어서 나가시는 날, 고맙다는 한
말 그 지루하고 어려웠던 만남들이 보람의
2로 바뀌어 버렸고 앞으로 새롭게 맞을 만
1 얼마나. 어렵고 헌신적인 노력이 없이는 지
일 수 없다는 반성이 그분의 뒷모습에 다짐
1하고만 있었다.

1더로 부끄러운 만남이었다.

1듯 내자신뿐만 아니라 임상에서 근무하는
1들이 느끼고 있는 이 만남들을 더욱 풍요
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큰노력이 있어야
1부심과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다짐과 함께
1려운 만남을 남들과 달리 가져야 하는 우
1어져면 평범한 만남속에 살아가는 남들보다
1 배울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닌
1는 반문과 함께 새로운 환자를 대해본다.

3월 17일 오전 9시, 명륜동에 자리잡고 있는 고
대부속병원, 무척 낡은 건물이다.

현관에 들어서서 2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빼뜨덕
대는 이 낡은 건물에서 현 의료계의 중추역활을 하
고 있는 인재들을 배출했다고 생각하니 절로 고개가
수그러졌다.

재활의학과 라고 쓰여있는 문을 힘차게 열고 들어
서니 마침 conference 가 있기에 같이 자리를 할
수 있는 힘든 기회가 본 기자에게 주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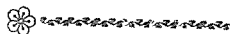
어떤 conference 인가 궁금하던차에 과원들의 토
론에서 신환에 대해 또 구환중 Progress 가 없는
환자들의 문제점에 대해 X-ray 를 같이 보면서 과
장님의 주제로 의국선생님들과 함께 환자의 Condi-
tion이나 보다 나은 치료를 위한 Conference 일
말았다. 이런 conference 를 얼마나 하고 있는가 여
쭈어보니 일주일중 화요일에 환자 conference 를 하
고 있으며 금요일에는 새로운 공부들 하고 있고 pr.
간의 Conference 가 목요일에 한번 있다는 답변에
본 기자는 과연 공부하고 연구하며 치료하는 대학
병원으로써 손색이 없구나 하는 감탄이 있었을 뿐
이다.

Conference 가 끝난뒤 치료를 시작한 선생님들
을 바라보며 실장님이신 유선생님께 이 과의 가장
자랑할 점이 무언가 여쭈어보니 첫째 과장님의 지
도하에 공부하며 연구하는 과로서의 자부심을 말했
하셨고 둘째, 어느병원 물리치료실에 비해서도 과
원간의 화목과 단결은 자랑할만 한것이라는 말씀
이셨다.

작은 이 과에서 그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느라 노
력하는 선생님들의 모습에 좋은 인상을 받았고 환
자 한 분 한 분에게 친절히 대해주는 모습은 흐뭇
하기조차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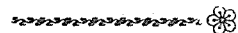
예쁜 여선생님들의 숨겨있는 커피를 마시며 본 협
회에 건의사항을 여쭈어보니 앞으로는 협회 회원 모
두가 참여할 수 있는 친목활동을 마련해 주시고
협회보다 같은 곳에 협회 회원들의 참여를 넓혀
달라는 의견에 감사드리며

본 기자는 따뜻한 커피의 여운과 과원들의 따듯
한 배움을 뒤로 문을 나섰다.



◎ 회원취업 안내

취업을 희망하는 회원이나 직원을 충원하실 병원
은 협회에 연락을 주시어 협회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 1회 ACPT총회 참가보고서

- 1) 개최일시 : 1981. 1. 5 ~ 1981. 1. 7
- 2) 장 소 : 태국 방콕 : Y. M. C. A 호텔
- 3) 참 가 국 : 한국, 일본, 자유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7개국 : (W. C. P. T. 이사회가 이웃에서 함께 열렸음)
- 4) 한국대표 : 백진, 김용주
참가자 : 고경철, 엄미란
- 5) 회의내용 :
(1) 학술발표회
(2) 전체총회
(3) 일반토의
- 6) 결의사항
(1) 정관통과
(2) 심볼마-크 제정
(3) 상임이사 선출
(4) 차기총회개최지 결정
- 7) 차기제 2회 A. C. P. T총회를 1984년 9월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가결
- 8) 기타사항
(1) 연수교육교류
(2) 상호관심사교환

위와같이 보고합니다.
1981. 2.

백 진
김 용 주

◎ 제 1차 정기이사회 및 임시이사회 개최

금년 2월 21일과 3월 9일 이사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안건이 처리되었습니다.

1. 미납회원 및 입회비의 인상은 5월말까지 유보기간을 둔다.
2. 4월중에 회원친목을 위한 야유회를 갖고 6월중에 재육대회 개최

☐ 투 고 환 영 ☐

참여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투고를 환영합니다.
논단(1면), 학술 및 집담·좌담회 초록(2면)
지부·병원·회원 탐방·회원작품(3면)
협회소식·건의·질의·응답·광고 등(4면)
원고 마감 : 매월 15일

도서 출판 대 학 서 립 Tel 73-7154

Manual of Mechanical Orthopadics Tohen Z/Thomas 5,000
Neurology for Physiotherapist Joan Cash 5,000
Physical Therapy Procedures Downer/Thomas 3,000

3. 학술담당 부회장(김용주)을 중심으로 관리위원회에 교수협의회를 병합하여 운영
4. 협회신문 발간의 구체적인 계획 및 내용
5. 학술대회 및 학술지 발간 준비위원 위촉
김용주·박찬의·석일현·정진우·오경환

“ 대한물리치료사협회 ” 귀하

North American Placement Service는 의 의료 종사자들에게 미국에 있는 병원이나 기관에 취업을 알선해 주는 기관입니다. 현재 미국 물리치료가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민 오는 람은 늘어가고 있으나 외국의 의료종사자들에게 면허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미국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자격있는 적당한 물리치료사 보내 주도록 요청 했습니다. 우리기관을 통하여 한 사람은 우선 임금을 잘 받을 수 있고 소아, 경외과, 스포츠 의학, 호흡운동 등 전문분야와 에서 개발된 새로운 의료기술을 배우고 익힐 수 는 기회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본 기관은 50주 지역에 걸쳐 어떠한 물리치료사에게도 국 경험과 적성에 맞는 자리를 제공 할 수 있으며 가능한한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고용계약을 하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기가 부담하나 다만 신청자는 independent auditing agency에서 당신이 미국의 이민법과 제도에 자격이 합당 한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용은 부담해야 합니다. 귀 협회의 회원에게 위 항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고 혹 귀 협회지에 기관의 광고가 실려지게 된다면 1부를 보내 감사 드리겠습니다.

Glenna Williams-Dean, PhD
President

주소 : North American Placement Service
1841 Columbia Road, N. W., Suite
Washington, D. C. 20009
U. S. A.

※ 낚시·바둑회원 모집

협회 회원으로서 낚시나 바둑에 취미가 있는 들의 모집을 갖고져 합니다. 뜻이 있는 회원은 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독 : 김재정 정형외과(591-5082) 오경환
낚시 : 을지병원(261-1631~4) 강정구
기간 : 1981. 4. 1 ~ 4. 30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훈동 198~36 (신한병원)

사단 법인 대한물리치료사협회

TEL 74-0926, 4707